

2030 탄소중립정책 '바람' 없인 차질

바이오 중유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대체 1045MW 필요 육상풍력 등 한계치... 해상풍력은 주민반발로 표류

온실가스 실질적 배출량을 '0'로 만든다는 '2030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도내 해상풍력발전 사업들이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무기한 표류하고 있어 '2030 탄소중립 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0월 12일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혁신 성장동력을 키우는 저탄소 섬으로 자리잡아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달성을 목표로 제시

하고 있으나 이달 현재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은 14.4%로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사용량의 연평균 3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100%를 대응하는 '2030 탄소중립 정책'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도내 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 350MW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화력발전은 CO2를 배출하는 바이오 중유, 경유, LNG 등이 원료이다. 도내 발전소에서 기존 발전연료인 중유를 오염물질 배출이 상

대적으로 적은 바이오 중유로 교체했으나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50MW 발전용량을 보유한 바이오 중유 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1045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필요하다.

도내 육상풍력과 태양광 설치 가능 지역은 이미 한계치를 보이고 있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필요하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형해상풍력(100MW)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한림해상풍력(100MW)도 전기사업허가까지 받았으나 일부 주민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한동·평대해상풍력(100MW)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나 해녀들의 생존권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도내 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는 "제주도 발전원별 전력공급 현황을 보면 화력발전 비율이 전체 78.14%, 신재생에너지가 21.33%, 기타 0.5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화력발전 연료인 바이오 중유를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발전까지 5~7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육지와 전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제주-안도 제3연계선이 개통되는 2022년 말 이후에는 전력과잉에 따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칠십리 축제 퍼레이드.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칠십리축제 칠십리공연장서 열린다

먹거리·체험부스 운영 않고 대면 최소화 방식으로 진행

제26회 서귀포칠십리축제가 오는 20~21일 이틀간 서귀포 천지연광장 내 칠십리아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축제는 서귀포시 주최, 서귀포칠십리축제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진다.

칠십리축제는 지난 8월 20일 전후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에 따라 한 차례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 하지만 10월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지역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면 최소화 방식으로 개최가 결정됐다.

축제 첫째 날인 20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서귀포 시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남극노인성제'를

시작으로 지역 공연예술·동아리 단체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 또 서귀포 3분 관광영화제 입장작 및 제주어 홍보·초청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첫째 날에 이어 '문화예술 한마당' '초청공연' 등이 계속 진행된다. 또 서귀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문화도시 105번 문화버스' 콘텐츠 홍보, '칠십리가요제-왕중왕전'이 열린다.

올해 칠십리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감염예방을 위해 개막식이 생략된다. 또 먹거리·체험부스가 운영되지 않으며 현장 공연별 관람인원이 70명으로 제한된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행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문의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760-3946. 현영종기자



가족들과 즐거운 낚시

16일 제주도 조천읍 조천리 해안가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낚시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8개 지방어항 보수·보강 완료

제주도내 8개 지방어항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수·보강이 완료됐다.

도내 지방어항은 신창항, 고산항, 사계항, 표선항, 태흥2리항, 신천항, 우도항, 종달항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공사를 통해 태평이나 월파로 파손된 안전난간 보수보강과 차막이, 블라드 등의 안전시설물 처리가 진행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1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번 사업은 항포구에서 낚시 및 산책을 하는 관광객과 도민들을 추락 사고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앞으로도 항포구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정기 점검하고 취약시설 조기 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지자체 주도 적극적인 감염병 관리 필요"

도의회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자체 주도의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의원)는 16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제주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

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충남과 함께 유일하게 지역차원의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가 없는 제주도의 조례 제정 필요성과 향후 조례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병욱 제주대 교수는 '코로나19와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조례' 주제 기조발표에서 "행정중심

적 대응에서 행정-의회-시민사회 상호협력적 대응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면서 "그 과정에 제주도 감염병 예방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추진 중인 고은실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역할이 있고, 지역의 역할과 그에 따른 집행은 조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충남과 제주도만 유일하게 조례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중

합해서 조례제정을 마련하고, 내년 2월 조례 제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민 위원장은 "도정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없이 국가차원의 감염병예방법에 의존하는 소극적 대응방식으로는 곤란하다"면서 "행정위주의 대응에서 탈피해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상호협력적으로 대응하는 모델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례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재활용폐기물 꼭 신고해서 버리세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8곳 27일부터 신고 의무화 시행

제주시 소재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재활용 폐기물 신고가 의무화된다.

제주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8곳은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로 의무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

능 폐기물은 대부분 민간 수거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업체와 처리량 등에 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또 효과적인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시 지역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대부분 제주시에서 수집·운반하고 있는데, 종이류와 폐의류 등 일부 품목은 공동주택에서 위탁 처리중이다.

신고 대상 품목은 폐지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류, PET병, 폐의류, 소형가전 등 11종으로 행정에서 청소차량을 이용해 수거하는 품목은 제외된다. 시는 공동주택 58곳을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요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그랜드보청기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행사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샵출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충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정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감골신품종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모둠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 아미انس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상한 모듬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 위치)

중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감골요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박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모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중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요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